

선거권 in 대/한/민/국

대한민국 청소년 PyO (pyo@mywith.net)

선거를 하고 싶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독일에도 선거권 확대를 위한 활동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선거를 하고 싶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표면적인 권리 행동이자, 가장 큰 권리행사 중 하나인 선거권 - 즉 정치참여의 권리를 누군가 제한하거나, 허락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권도 이 사회를 운영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인 만큼 인간의 천부인권과 같이 보편성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수히 진보적인 단체를 가지고 있는 민주사회라 하여도, 청소년들의 권리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제한되어 있다. 저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이유는 청소년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 판단 혹은 평가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성숙'되기 위한 한 과정으로 해석됨으로써 현재의 삶과 생각, 판단, 자위적 결정권이 모두 미완의 상태로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만 18세로, 아니면 만 19세로?

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좀 더 많은 이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 정확히 말하자면 선거권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 제정된 만 20세 규정이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의 사회 위치의 변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한 후에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의 구체적인 나이가 18세이던, 19세이던, 혹은 15세이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참정권 확대운동처럼, 투표권이 사회참여의 권리라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권 하향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꼭 한번쯤 묻는다. “만 18세로, 아니면 만 19세로?”

1999년에 청소년 선거권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에서 이전에는 없던, 만 19세 선거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한국에서의 '만 19세 선거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폭력성을 생각한다. 만 18세와 만 19세 논란의 중심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중요 지점이 존재한다. '만 19세 vs 만 18세' 투표권 논란은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계층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 vs 대학생' 구조의 함정

만 19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만 18세를 선거권 허용 나이로 적용할 경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직 '학생'인 고3의 경우 이 사회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하향 연령은 만 19세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수능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 판단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판단, 즉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각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면 왜 가르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자.) 같은 이유의 반대적 측면으로, 고3을 벗어난 대학교 1학년의 나이인 만 19세는 선거권이 주어져도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친 후에 제시되는 나이 만 19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나눔과 그에 따른 성숙과 미성숙의 판단 결과이다. 고등학생이 졸업식을 끝내고, 대학을 입학하는 몇 달 사이에, 변태를 거쳐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나이와 고등학생/대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이 있고 난 후, 실제로 법적으로 만 18세였던 성인영화 관람 연령이 단계적으로 만 19세로 맞춰지기도 했는데, 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숙/미성숙의 판단이 실질적인 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고등학생/대학생, 성숙과 미성숙의 판단 결과에서 나오는 만 19세로의 선거권 하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만 18세와 만 19세의 논란은 단순한 1살의 나이 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미성숙하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의 의미가, 청소년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현재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만 19세는 성숙과 미성숙의 단계를 나누는 나이의 기준을 한 살 낮추는 것 이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의 의미 다시 짚기

문화연대, 학벌 없는 사회, 두발제한 반대운동을 했던 청소년 웹 연대 with 등은 '낮추자'(http://www.downage.net) 라는 선거권 하향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활동중이다. 다들 각자의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청소년 선거권운동을 벌이고 연대하고 있는 중이다. '낮추자'는 오늘 12월 대선에 온라인/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사회 시민단체들과의 끊임없는 연대도 모색을 하고 있다. 대선 유권자 연대나, 참여연대, 전교조에 함께 사업 제안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연대 모색의 한 방안이다. '낮추자'의 모임이 이와 같은 연대의 폭을 넓혀가는 이유는, 바로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바로 이 사회를 함께 '책임'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주인공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것이다. 두발 제한 반대 운동과 같이 청소년의 힘으로만 이 운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 어른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은 나이와 그에 따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정치적 채널을 획득함에 따라, 그들 자신이 가르침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확대는 학교 안의 질서도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발언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정함과

미성숙의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은 정치에 관심 있는 몇몇 청소년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 문제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청소년이 사회에 함께 하는 존재라면, 그 사회를 운영하는 논리인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낮추자 소개글

- 대한민국 청소년 PyO

낮추자에는 15살부터 20살 초반의 청소년들이 모여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투표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권이라는 것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일을 벌이기에 막막하기도 길일 잘 안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대선모의투표를 위해 온라인에 등지(<http://www.downage.net>)를 틀고, 이제 10여명의 청소년이 나누던 고민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낮추자에는 2년 전, 두발제한반대운동을 했던 청소년 웹 연대 with가 속해 있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는 2년전처럼 청소년들의 웹 공간이 모여서 사회와 소통하는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연대나 대선유권자연대처럼 기존의 시민단체와도 함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선거권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바로 이 사회를 함께 '책임' 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주인공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어른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청소년 선거권은 나이와 그에 따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정치적 채널을 획득함에 따라, 그들 자신이 가르침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조금 멀어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움직임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한번 귀를 기울여주세요. 청소년이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면, 그 사회를 운영하는 논리인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7세 소녀 화이가 8880KM를 넘어 독일로 보낸 편지>
19세 소녀 하원의원 안나 리흐만에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웠어요.

19살의 나이로 정계진출 했다는 것이 저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데 언니가 이번에 19살의 나이로 최연소 의원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독일과는 먼 곳에 위치한 한국에 살고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요, 나이는 언니보다 2살 어린 17살이에요. 이름은 박혜신 이라고 해요.

저는 요즘에 선거권 하양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언니의 하원 의원 당선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19살의 나이로 정계진출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언니의 나이로 정계 진출이 가능했다는 것에 더욱 놀랍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의 나이가 만 20세로 정해져 있어서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선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 중에도 생일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선거를 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언니 나이에 정계진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여태까지 그런 유례도 없었고, 선거권이 없는 만 20세 이하에게 후보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와 사회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느정도 사회를 바라 볼 수 있는 견해와 정치적 의견을 말할 능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진취적인 대안들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의견은 꼭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독일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참 부러워요.

평소에 TV나 신문을 볼 때 청소년인 제가 봐도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내고 싶어도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갖추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이란 쉬운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기만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니가 이번에 의원으로 나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희망적이고 기쁘네요.

어느 나라나 사회적인 비리는 다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그만큼 이해 타산을 위해 자신의 소견보다는 다른 부분과 타협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해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역할을 언니가 하게 되었다는 것에 용원을 보내요. 언니의 의원진출은 부러움과 동시에 그 나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용기를 많이 느껴요.

물론 독일과 한국이 서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입지가 같을 수 많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언니의 이번 도전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앞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 잇는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若者が模擬選挙を実施

投票年齢引き下げ訴え



【ソウル＝三木一哉】選挙権の年齢を20歳から18歳に引き下げるよう求めている若者グループ「韓国青少年PYO」が19日、大統領選の投票に合わせ、ソウルの繁華街明洞で若者に模擬投票を呼びかけた。写真。

グループ代表の朴俊杓さん(22)は「今の青少年政策は、若者ではなく私たちのためのもの。18歳で選挙に参加できるようになれば、教師の暴力や政府の文化活動への干渉に直接声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話す。

高校生らのボランティアが「選挙管理委員」となり投票用紙を渡した。開票後、「当選者」の候補者本人に「任命書」を渡す計画だという。

すでに選挙権のある朴さんは「未成年の仲間20人と議論し、その結果に基づいて投票を済ませてきた。だれに投票したかは言えません」。